www.newsunion.co.kr

연합노보

특보 2012.5.29 (화)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하동 67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공병설·편집인 정성호.구정모

가처분사건 속전속결..쟁대위 징계 추진

박 사장의 노조탄압 '꼼수'는 계속된다

고성은 없었다. 조합원의 팔뚝을 내리치는 물리적 폭력 행사도 없었다. 출근 저지 3일차 박정찬 사장은 조용히 물러섰다.

하지만 노조를 탄압하려는 술책은 이어졌다.

29일 오전 8시 조합원들은 사장실 앞 복도를 다시 찾았다. 박 사장이 기습적으로 일찍 출근한 전례가 있어 노조가 좀 더 이른 시각에 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박 사장은 오히려 평소보다 30여분 늦은 오전 9시 56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스크럼을 짠채 대열을 갖춘 조합원들을 한번 둘러보고선 곧장 타고 올라온 엘리베이터로 발길을 돌렸다.

출근 저지 2일차인 지난 25일 "내 방 내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라며 고함을 지르며 조합원들의 대열에 돌진하던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아무 일 없는 듯 박 사장은 자리를 떴지만 그의 '꼼수'는 계속됐다.

박 사장은 노조와 쟁대위원, 대의원 등 58명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가처분 신청 중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노조와 노조위원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법원 서류가 피신청인 모두에게 송달돼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건을 빨리 진행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박 사장이 나머지 인원의 가처분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결국 피신청 대상 전원이 법원 서류를 전달받은 결과가 된 것이다.

MBC의 경우 가처분 신청 서류가 피신청 대상 조합원들에게 송달되지 않아 심문기일이 잡힐 때까지 석달이나 걸렸다.

한 노무 담당 전문가는 "애초 가처분 신청 대상자를 대의원까지 많이 한 것도 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취하한 것은 처음 보는 사례"라며 박 사장의 꼼수에 혀를 내둘렀다.

법원이 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노조는 위반행위 하루에 1천만원,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각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앞서 박 사장 측은 법원 서류 송달이 차질을 빚자 쟁대위-대의원 연석회의가 열리기로 한 일시에 친절하게도 법원 집행관을 노조 사무실로 직접 안내해주기도 했다.

박 사장 측은 또 파업 지도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날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에 참여한 양정우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조기소환 인사를 낸 데 이어 또 다른 탄압행위를 착착 진행하는 것.

겉으론 여전히 노조와 대화하자고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갖은 술책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는 이중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가 3차 업무복귀 시한이지만 추가로 복귀한 조합원은 거의 없다"며 "사측의 업무복귀명령은 파업한 지 80일이 다 돼 가는 이 시점에도 우리 대오가 얼마나 굳건한지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내일부터 사흘을 집중 투쟁기간으로 정했다. 적어도 두자릿수 대 인원이 파업 기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가 주점에 '연합뉴스 파이팅 세트' 메뉴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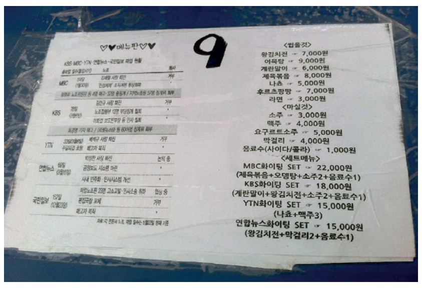
'연합뉴스 파이팅 세트'가 나왔다. 왕김치전에 막걸리 2병, 음료수 1병. 가격은 1만5천원이다. 봄 날씨가 완연한 5월 한 대학가 주점에서의 일이다.

서울시내 모 대학 언론계열 학과가 지난 25일 '언론파업'을 테마로 일일주점을 열었다. 주점 주변을 연합뉴스를 비롯한 MBC, KBS, YTN 등 언론사 파업 관련 사진으로 꾸미고, 이들 언론사 이름을 딴 메뉴를 선보였다.

대학생들에게 연합뉴스가 아직 생소한 탓인지 연합뉴스 세트 메뉴가 타사에 비해 밀리는 형국이었다.

세트 메뉴 가운데 돼지고기 볶음, 어묵탕, 소주 2병으로 구성된 'MBC 파이팅 세트'가 2만2천원으로 가장 비쌌다. KBS는 1만8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YTN은 연합뉴스와 같은 1만5천원이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과 학생회는 언론사 파업에 과 선배가 많이 동참하는 데다가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파업사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주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회는 주점 수입금의 일부를 파업 기금으로 기부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주점 수입금으로 과 학생회 1년 살림살이를 충당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멋쩍어했다.

과 학생회장은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가 중심"이라며 물질적으로 기부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이를 전해 들은 같은 과 출신 파업 노동자는 "선배를 물주로 여기는, 역시 내 후배들이군"이라며 주점을 찾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는 후문이다.